

박완서 소설과 ‘비평’: 공감과 해석의 논리

이선미*

〈차례〉

1. 박완서 소설의 수용과 해석의 문제
2. 해석의 첫 단계: 1970년대/1980년대
3. 해석의 다양성과 오독의 가능성
4. 박완서 소설 해석의 눈: ‘전쟁’ 경험의 현재적 맥락화
5. 마무리

〈국문초록〉

박완서는 1990년대 두 권의 자전소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와 『그 산이 정말 거기있었을까』가 나오고, 1999년 단편소설전집이 출판사 ‘문학동네’에서 발간된 이후, 새롭게 발견된듯이 문단에서 주목받기 시작한다. 그러나 1970년 『나목』으로 등단할 때부터 줄곧 호의적으로 평가받은 작가는 아니다. 특히 1980년대에는 여성작가이면서 대중작가이고, 소시민적 내면심리를 주로 묘사하는 작가라는 점 등이 단점으로 평가되어 혹독하게 비판받기도 했다. 게다가 작품에 대한 연구도 그다지 풍성하지 않다. 자전소설로 알려진 최근의 소설과 『엄마의 말씀』에 연구가 집중되어 있으며, 많은 장편소설들과 1970~80년대 단편소설들은 명성에 비해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글은 박완서 소설을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 과잉 해석한 경우를 통해

* 동국대 국어국문학과 BK연구교수

박완서 소설 해석에 내재된 지식인 사회의 담론화 양상과 사회 인식의 문제를 검토한다. 따라서 이 글은 박완서 소설에 대한 연구이면서 동시에, 박완서 소설이 해석되는 한국사회의 담론적 흐름에 대한 연구이기도 하다. 나아가 박완서 소설이 한국사회의 어떤 현실적 문제를 서사적으로 재현하고 비판하는가를 따져보는 자리이기도 하다. 1980년대가 작품을 폄하하는 방식으로 ‘오독’의 예를 보여주었다면, 1990년대 이후는 작품을 과도하게 신화화하는 방식으로 ‘오독’할 가능성을 내비친다.

박완서의 2009년 작품인 『빨갱이 바이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박완서 소설은 평화, 모성, 따뜻함, 포용, 너그름보다는 따뜻한 언어로 포장된 내면에 잠복해있는 이기심이나 상처를 ‘혐오감’, ‘고약함’ 등의 정서를 매개로 헤집어 밝혀내는 것에 더 가깝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빨갱이’라는 정체를 특수하게 구성하는 한국사회의 현실을 냉정히 성찰하려는 주제의식이 강하다. 전쟁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는 작가는 마지막까지도 여전히 한국사회는 냉전이 지배적인 질서라는 점을 환기한다. 문제는 전쟁의 과정이고 전쟁을 기억/망각하게 하는 전후 사회의 성격인 것이다. 박완서 문학을 해석하는 것은 이런 전쟁의 연관성을 외면하고서는 이를 수 없는 미로이기도 하다. 박완서 문학은 한국 전쟁과 한국 근현대사를 ‘이는 것’은 힘이 된다는 것을 절감하게 하는 텍스트이다.

핵심어: 해석, 공감, 자전소설, 오독, 사회담론, 전쟁, 근대성, 빨갱이 바이러스, 냉전

1. 박완서 소설의 수용과 해석의 문제

1998년 겨울에 단편소설집 『너무도 쓸쓸한 당신』이 출간되고 1999년에 『문학동네』에서 5권의 “박완서 단편소설 전집”이 발간될 무렵, 박완서 소설에 대한 문단이나 연구자들의 평가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문학잡지를 발간하는 출판사인 ‘문학동네’에서 단편소설 전집이 출간되면서

새롭게 박완서 소설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과 7년 만에 신작 단편소설집을 발간한 일은 우연인 듯이 맞물리면서 박완서 문학에 관심이 쏠린다.¹⁾ 그리고 문단을 중심으로 한 문학담론 상에서 노작가인 박완서 문학에 대한 평가는 칭찬 일색으로 채워진다.

“전쟁의 참혹함과 억압적인 상황과 일상적 삶의 위선이 그렇게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어 “그 선의 양 극단을 자유롭게 왕래하며 세대와 시속의 풍경들을 포착해내”²⁾는 박완서의 소설은 “저만큼 풍요롭게 일상적 삶을 묘사한 작가가 우리 소설사”³⁾에서 염상섭 정도를 제외하고는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는 가장 눈에 띈다. 새로운 창작집(『너무도 쓸쓸한 당신』)은 점입가경이라는 말도 첨가하면서 “집요한 장인정신”을 가지고 한국근대문학 초기의 거장을 닮은 박완서는 “한국 소설사의 대단한 행운”⁴⁾이라고까지 평가한다. 이런 평가는 『너무도 쓸쓸한 당신』에 쏟아지는 문학지들의 서평과 어울려 박완서를 새롭게 자기세계를 구축한 작가 인듯이 발견하게 만들기도 한다.⁵⁾ 1998년 『너무도 쓸쓸한 당신』이 출간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박완서 문학에 대한 평가는 전적으로 긍정적이며, 한국 소설사의 한 정점으로 평가하는 데 인색하지 않다.

그런데 1970년에 등단하고 별 부침없이 꾸준히 작품활동을 해온 작가

1) 1994년에 발간된 『한 말씀만 하소서』를 단편소설집으로 분류한다면, 『저문 날의 삽화』(문학과지성사, 1991)와 『너무도 쓸쓸한 당신』(창작과비평사, 1998) 사이에 단편소설집이 한 권 더 간행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한 말씀만 하소서』는 목상집이라는 표제를 달고 출간되었고, 소설이 있기는 하지만, 주로 아들의 죽음을 치유하는 작가의 일기가 수록되어 있기에 단편소설집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2) 서영채, 「사람다운 삶에 대한 갈망」, 『박완서 단편소설 전집 3 아저씨의 훈장』, 문학동네, 1999, 372쪽.

3) 위의 글, 385쪽.

4) 위의 글, 385쪽.

5) 실제로 『너무도 쓸쓸한 당신』에 대한 혼평 수준의 평가들은 친편일률적으로 박완서 문학이 완숙한 경지에 도달했다고 찬사를 보낸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때, 문단의 평가가 새로운 것은 아니며, 작가 스스로도 새롭게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작품을 해석하는 비평담론의 문제로 볼 때, 새롭게 제기된 것은 사실이다. 박완서 소설은 별반 달라지지 않지만, 박완서 소설에 대한 비평은 시기에 따라 변화하는데, 이 소설집을 둘러싼 평가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지만, 창작 초기부터 이렇듯 한결같은 평가를 받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1990년대를 훌쩍 넘어 최근에 부각된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그러면 당연히 박완서 문학 연구의 관점에서 이런 문학적 평가는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겠다.⁶⁾ 이런 의문점을 바탕으로 박완서 소설을 해석하는 서로 다른 관점의 원인을 해명하는 것은 박완서 문학을 보다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일이기도 하다고 보인다.

박완서 소설은 자질구레하고 사적인 생활세계를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해석이 단순 명쾌할 것 같지만, 단선적 구조를 지니지 않기에 의외로 주제를 정리하기가 쉽지 않다. 산만하게 여러 이야기들을 삽화적으로 이어놓기도 하고, 수다스러운 문체로 여러 이야기들을 연상적으로 이어가며 한꺼번에 얽혀 드러나게 하기에, 한 마디로 정리할 수 없게 만든다. 게다가 말이나 행동과 다르게 인물의 성격을 담아내는 내면의 생각들이 다채롭게 펼쳐져 있어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기에도 서사를 따라가는 시간이 필요하다. 박완서 소설은 겹겹이 쳐진 막을 걷어내듯이 이야기를 헤집어 따라가야만 전체적인 의미가 윤곽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구성적이다.⁷⁾ 그러나 천의무봉의 문체라는 평가로 알 수 있듯이,⁸⁾ 여러 겹으로 얽혀서 드러난 이야기들은 수다스러운 문장으로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서로 다른 이야기들로 넘나들고 있기에 복잡하거나 어려운 구성을 감지할 정도는 아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덩어리로 얽혀진 사건들의 연속이면서 지루하고 평범한 나날이듯이, 통제된 삶을 담고있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따라가며 동화되기 일쑤다.

이런 서사적 특성은 독서하는 과정에서는 대중성을 얻는 요인이 되지

6) 1991년 작가세계 특집이 구성되던 시기부터 이런 문체의식은 박완서 연구에서 제기되어왔다. 조한혜경, '박완서 문학에 있어 비평이란 무엇인가', 『작가세계』, 1991 봄; 박혜경, 『박완서의 「엄마의 말뚝」을 읽는다』, 열림원, 2003 참조.

7) 이선미는 이런 '산만함' 구성을 박완서 소설의 형식적 특성으로 주목한 바 있다. 이선미, 『박완서 소설 연구』, 깊은샘, 2004 참조.

8) 김윤식, 「천의무봉과 대중성의 근거-박완서론」, 『문학사상』, 1988.1 참조.

만, 해석자에게는 불리한 조건이 된다. 단순명쾌한 해석을 기대하며 읽어가면서 어느 하나라도 서사적 장치를 놓치게되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작품을 해석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박완서 소설은 현실적인 관심이 두드러지고 사회적 발언의 형식을 지닌다고 평가될 정도로 현실성이 강하다. 세밀한 일상사를 재현하는 방식으로 삶의 문제를 제기하기에, 전쟁의 영향, 중산층의 허위의식, 여성문제 등 사회적 현안과 밀착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담론과 연관지어 해석될 작품도 많고, 사회담론의 개입에 의해 재단 평가 될 가능성도 크다. 해석자가 어떤 경험과 인식을 갖고있는가에 따라 세밀한 디테일을 리얼리티로서 공감할 수도 있다. 이렇듯 다양한 양상으로 펼쳐져있는 일상사는 다양한 독자층을 형성하며 다양한 맥락으로 해석/수용되는 이유이다.

박완서 소설을 해석하는 문제를 놓고 그 관점을 논의하고자 하는 이 글은 단지 박완서 소설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경향이나 관점을 개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박완서 소설을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 과잉 해석한 경우를 통해 박완서 소설 해석에 내재된 지식인 사회의 담론화 양상과 사회 인식의 문제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박완서 소설에 대한 연구이면서 동시에, 박완서 소설이 해석되는 한국사회의 담론적 흐름에 대한 연구이기도 하다. 나아가 박완서 소설이 한국사회의 어떤 현실적 문제를 서사적으로 재현하고 비판하는가를 따져보는 자리이기도 하다.

한국사회의 여러 가지 삶의 양상들은 분단이나 전쟁의 현재화를 거치면서 구성된다. 박완서 소설의 일상사들이 배치되는 맥락은 거의 대부분 이런 역사적 정황들과 연관된다. '전쟁'을 근원적인 것으로 경험하게 하는 다양한 일상적 디테일들은 삽화적으로 연결되어 전쟁을 담지한 생활세계를 구성한다. 전쟁과 한국사회의 근대화 과정이 어떻게 맞물리는가를 해석할 수 있는 전쟁 인식은 박완서 소설을 해석하는 중요한 '지식'의 망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어떤 지식의 망을 치고 그 안에 박완서 소설을 내려

놓는가에 따라 해석의 양상은 관이할 정도로 달라진다는 관점을 바탕으로 박완서 소설을 해석하는 다양한 인식을 점검하고자 한다.

2. 해석의 첫 단계-1970년대/1980년대

박완서는 1970년에 『나목』이 『여성동아』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등단한 이래 2010년에 발표한 단편소설들에 이르기까지 40년 가까운 세월동안 끊임없이 고르게 작품을 창작하며, 꾸준하고 일관성있게 작품세계를 유지한 작가이다. 게다가 1977년 『꽃씨에게 보내는 갈채』에서부터 2010년 『못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까지 11권의 산문집을 꾸준히 발간하기도 한다.⁹⁾ 이 수 십 권의 장편소설과 단편소설집, 그리고 산문집에 이르기까지 장르만 구분될 뿐이지, 작품의 주제 뿐만 아니라 구성방식은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일관성이 있다. 등단작인 『나목』이나 마지막 시기에 발표된 「빨갱이 바이러스」까지 인물의 내면의 생각을 가차없이 파헤치고자 하는 서술자의 위압적 태도는 여전히 작품을 압도하는 서술의 힘이다.¹⁰⁾ 창작인 소설 뿐만 아니라 산문집에 실린 일상사를 찬찬히 들려주는 에세이조차, 서로 다른 일화들이 이어져 하나의 이야기로 주제화되는 방식은 1977년 첫 책이나 2010년 마지막 책이나 여전히 같다.

이렇듯 사소한 일상사를 소재로 한 소설이나 에세이가 갖고있는 한결 같은 성격에 비해, 박완서 문학에 대한 평가는 시대의 변화를 그대로 반

9) 산문집은 몇 권 더 발간하였으나, 중복 발간한 경우가 더러 있다. 새로 발간한 산문집은 11권으로 볼 수 있다.

10) 김병익은 이런 서술자의 성격이 불편해서 작가에 대한 거부감까지 갖게되었다고 고백하기도 한다(김병익, '박완서, 거짓된 세상을 아프게 껴안다', 『모든 것에 따뜻함이 숨어있다』, 웅진지식하우스, 2011, 271쪽 참조). 많은 남성평론가들은 서술 태도에서 드러나는 여성 인물의 이런 성격을 불편해한다. 특히 남편의 내면을 헤아리는 아내의 시선이 압도적인 『살아있는 날의 시작』(1979년 『동아일보』 연재), 중산층의 위선적 내면을 적나라하게 묘사한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1983년 『한국일보』 연재)는 이런 방식으로 작품이 비판되기도 한다.

영히는 듯이 시대적 담론 경향에 따라 크게는 1991년과 1992년을 기점으로 전후가 달라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1970년대와 1980년대가 다르고, 1990년대와 『너무도 쓸쓸한 당신』이 나온 이후인 2000년대가 다소 변화를 보인다. 그리고 박완서 문학에 대한 연구가 199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이전의 비평이나 연구는 별로 많지 않다. 비평의 내용도 여성작가이고 대중작가라는 점을 부각시켜 작품 내용보다는 작가의 성향을 분석한 경우가 많다. 1991년 봄, 『작가세계』 특집으로 박완서가 다루어지면서 평자들 사이에 논쟁이 이루어진 것이 박완서 문학에 관심을 기울이게 만든 한 편의 계기였다면, 냉전적 세계질서가 변하는 가운데 전쟁과 결부되는 개인적 체험을 새롭게 구성한 자전소설인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1992, 웅진출판, 이하 『싱아』)와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1995, 웅진출판, 이하 『그산』)의 출간은 박완서 문학이 주목받는 직접적 계기가 된다.

1990년대 초반 이전과 이후의 박완서 문학에 대한 평가는 말 그대로 천양지차인 경우도 더러 있다. 특히 박완서가 작가로서의 입지를 다지면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한 1980년대에¹¹⁾ 박완서 문학에 대한 평가는 혹독하리만치 비판적이기도 했다.¹²⁾

박완서를 베스트셀러 작가 반열에 올려놓은 『휘청거리는 오후』의 출간 이후 1970년대 문단의 중심에 있던 비평가들은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한

11) 박완서는 단편소설과 장편소설의 비중이 거의 비슷한 작가이며, 소설만큼이나 에세이의 양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이 글들은 장르의 범칙에 충실한 정도만 다를 뿐 주제에 있어서 별달리 차이가 나지 않는다. 1930년대의 신문연재소설 작가가 생계를 위해서 통속소설로서 신문연재소설을 쓴다는 식의 단편소설과 장편소설을 평가르는 장르 인식은 보이지 않는다. 또 1960년대나 1970년대 신문연재소설 작가에게 요구되던 '벗기기'의 상업성과도 별로 연관되지 않는 듯하다(1960년대 신문연재소설 작가에게 요구되던 '벗기기'의 문제는 이선미, 「1960년 전후 (성)문화풍속과 '사랑'의 사회성」, 상허학보, 2010.6 참조). 박완서는 신문연재소설을 쓸때, 스스로 신문사의 요구에 맞서고자 각오했으나 그런 간섭은 별로 받지 않고 썼다고 말한 바 있다.

12) 이에 대해서는 조한혜정이 꼼꼼히 분석한 바 있다. 조한혜정 앞의 글 참조.

다. 주로 현재까지 현역 비평가로 활동하는 백낙청, 유종호, 염무웅을 비롯하여¹³⁾ 이선영, 김윤식에 이르기까지¹⁴⁾ 박완서 소설의 사회비판적 정신과 날카로운 심리묘사를 평가하면서 새로운 작가의 출현을 예견하기도 한다. 박정희의 유신정치가 기승을 부리던 때에, 소시민적 일상과 속물적 이기심을 통찰하고 비판하는 자의식은 소중한 문학적 자산으로 평가받은 것이다. 그러나 젠더적 경험과 분단시대의 근대화로 확장되는 주체의식을 읽어내는 경우는 별로 없다.¹⁵⁾ 사회비판적 경향은 읽어내지만, 사회비판을 드러내는 근원적 문제의식을 해석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남성 지식인 중심으로 사회비판적 의식에 관심이 집중되었던 1970년대의 담론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런 사회담론과 연계된 비평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론’이 모든 현실적 실천을 기획하고 지도하던 1980년대에는 권위적 비평 태도가 더 강화되어, 박완서 소설에 대한 지도비평의 관점이 두드러진다.

1980년대에 박완서는 1979년 10월부터 1980년 5월까지 『동아일보』에 『살아있는 날의 시작』을 연재하는 것을 시작으로 『오만과 몽상』을 『한국문학』(1980~1982)에,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이하 『그해 겨울』)를 『한국일보』(1982)에, 『서 있는 여자』(연재시 『떠도는 결혼』)를 『주부생활』(1982~1983)에, 『서울 사람들』을 『2000년』(1984)에, 『미망』을 『문학사상』(1985~1989)에, 『그대 아직 꿈꾸고 있는가』를 『여성신문』(1989)에 연재한다. 이와 더불어 중간중간에 35편 가량의 단편소설을 발표한다.

13) 백낙청, 「사회비평 이상의 것」, 『창작과비평』, 1979. 여름; 유종호, 「고단한 세월 속의 젊음과 중년」, 『창작과비평』, 1977. 가을; 염무웅, 「사회적 허위에 대한 인생론적 고발」, 『세계의 문학』, 1977. 겨울 참조.

14) 김윤식, 「박완서론-망설임 없는 의식」, 『우리 문학의 넓이와 깊이』, 서래현, 1979; 이선영, 「세파 속의 생명주의와 비판의식」, 『그 가을의 사흘동안』, 나남, 1985 참조.

15) 조한혜정은 이 남성 지식인들의 비평을 박완서 소설을 통해 ‘보편적 진리’를 구성하는 비평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이 보편성은 남성성과 여성성이 분리된 상태의 남성적 보편성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한다. 즉 이 평론들의 ‘보편성’은 젠더적 관점 속에서 구성된 보편성을 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쪽짜리 보편성이라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보편성’이 젠더적으로 다르게 구획되어 있는 사회에서 보편성을 논하기 위해서는 젠더적 분할의 구도를 파악하고서 양면적 사유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조한혜정, 앞의 글, 116쪽 참조.

1976년 『동아일보』에 연재한 『휘청거리는 오후』를 통해 인기작가가 되면서 문단에 알려진 후, 1980년대에는 가장 왕성하게 활동을 했던 시기이다. 『미망』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시대적 생활세계를 재현한 작품들이다. 1983년 전국적인 사건이 되었던 이산가족 찾기 캠페인을 예견이라도 하듯이 이산가족 문제를 다루었던 『그해 겨울』은 이산가족의 만남과 화해를 그리기보다는 ‘외면’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사회적으로 논란거리가 되기도 한다. 또 1970년대 소설들이 여성의 결혼과 일상문화를 재현하는 방식으로 도시 중산층의 이기심과 안일을 성찰하는 자의식을 보여주었다면, 1980년대에는 『살아있는 날의 시작』을 기점으로 결혼과 이혼이라는 문제를 통해 본격적으로 여성문제를 다룬다. 이산가족 문제나 여성문제는 당시 보통사람들의 관심사를 반영하는 문제였고, 대중적 관심이 드러나자 저널리즘적으로 논의되기도 한다. 1980년대 박완서는 소설도 많이 썼지만, 당대 이슈가 된 문제들을 다루는 경향이 강했기에, 당대 사회담론의 흐름 속에서 평가되었다. 즉 1970년대 박완서의 소설이 중산층의 부상을 새로운 사회적 변화로 그 의식의 측면에서 조명했다면, 1980년대는 1970년대적 변화가 여성들의 관습적 삶의 형식과는 더 이상 조화를 이룰 수 없다는 현실을 문제시한다. 대중적으로는 공감을 얻지만, 계급운동과 민족운동이 사회담론을 주도하던 1980년대 문단에서는 비판적인 논조의 질타를 받는다. 전쟁의 질서 속에서 구축된 중산층의 이기심과 이산가족의 ‘외면’을 다룬 『그해 겨울』이나 불행한 결혼생활과 결혼을 주체적으로 거부하고자 하는 중산층 여성의 주체성 찾기의 서사는 민족문제나 계급문제의 올바른 해결이 아니라고 비판받는다.

1985년 가을 『창작과 비평』에 발표된 황광수의 글은 민족통일적 입장에서 『그해 겨울』을 비판적으로 고찰한 대표적 비평이다. 그는 “진정한 화합의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접근으로도 보이는 이 소설은, 화합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왜곡된 정서에 대해서는 불필요할 정도로 섬세한 묘사를 보여주었다. 그래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이 소설 속에서 화합이나 통일이란 불가능한 것일 수도 있다는 절망적인 판단을 이끌어낼 수도 있고,

화합 자체가 귀찮고 거추장스러운 것이라는 생각에 이를 수도 있다. 이만큼 이 소설은 만남과 화합, 나아가서는 통일의 어려움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¹⁶⁾기 때문에 통일 지향적이지 않고, 분단지향적이라고 평가한다. 그리고 “분단이나 이산가족의 재회를 소재로 삼는 소설가들은, 그 소재 선택 자체가 민족사적 문제의식 내지는 도덕성을 내포”하기에 “그 주제가 개인심리 묘사예의 치중, 죄와 참회의 내면적 갈등에 대한 집요한 추적, 나아가서는 계층적 차이 자체를 절대화시키는 일 등이 가져올 수 있는 역기능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경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분단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분단시대의 인물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함께 분단 극복의 의지를 지닌 이상적 인물의 창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¹⁷⁾이라고 소설가를 계몽한다. 리얼리즘 문학론에서 현실의 반영보다는 “극복의 의지를 지닌 이상적 인물의 창조”가 더 중요하다고 평가하는 낭만적 관점을 굳이 환기하지 않더라도 다소 모순적인 리얼리즘론임을 알 수 있다.

중산층 여성의 자의식을 통해 현실을 재현하는 경우, 계급문제보다도 여성문제를 더 중요한 것으로 파악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하는 비평도 이 시기 박완서 소설을 혹독하게 비판한 대표적인 경우이다.¹⁸⁾ 이와 더불어

16) 황광수, 「민족문제의 개인주의적 굴절」, 『창작과 비평』, 1985. 가을, 280쪽.

17) 위의 글, 282쪽.

18) 여성해방문학 진영의 박완서 비판의 논리와 이로 인한 논쟁은 1988년 『여성』 2호의 기획 특집논문인 「여성해방의 시각에서 본 박완서의 작품세계」(김경연, 전승희, 김영혜, 정영훈)을 시발점으로 하여 1991년 조한혜정과 전승희의 논쟁에까지 이어져, 1991년 7월 『말』지에 『박완서 문학과 여성문학이 나아갈 길』이라는 글로 정리된다. 조한혜정의 글이 다소 감정적으로 공격적인 면모를 보이긴 하지만, 작품을 평가하는 관점을 비판한 논조는 수긍할 만하다. 반면, 『여성』지의 논문은 1980년대 재단 비평의 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박혜정은 박완서 문학 연구 성과를 개관하는 자리에서 조한혜정의 논의를 재단비평의 전형으로 평가하는데, 오히려 황광수나 전승희를 중심으로 한 창작과비평사의 박완서 문학 비평이 재단비평의 성격을 더 강하게 드러낸다. 그러나 이 시기 비평의 편향적 태도를 어느 한 개인의 몫으로 돌리기에는 ‘이론’의 지도성을 신화화하는 문단풍토가 너무 강력했다. ‘이론’을 수행하지 않는 작품은 혹독하게 비판받고 지도받아야 한다는 문학론이 이런 태도를 당연한 것처럼 뒷받침하고 있었다. 사회변혁을 지향하는 담론이 지식

작가를 작품의 여성주인공과 동일시하는 방식으로 작가의 여성성을 빗대어 비판하는 경우나¹⁹⁾ 박완서 문학을 해석하기 이전에 대중작가라는 잣대에 맞추어 평가하는 비평도²⁰⁾ 1980년대 박완서 문학을 문학 바깥의 기준에 기대어 재단한 경우로 볼 수 있다.

여성작가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았던 1980년대 문단, 대중문학을 고급 문학과 대립적으로 구분하여 상업문학으로만 인식하는 1980년대 문단, 중산층 여성의 문제를 다루더라도 단지 여성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민중의 해방을 추구할 때만이 올바른 여성해방문학이라고 주장하는 1980년대 문단은 중산층 주부의 심리를 묘사하는 데 거의 전문가적 수준을 보여주는 박완서 문학은 쉽게 긍정할 만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1980년대는 한국사회의 민주화를 향한 사회운동이 정점을 치닫던 때이다. 군사권력의 폭력적 억압에 맞서고자 하는 저항담론이 지식인 사회에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다. 민족문제나 계급문제는 사회운동의 이념을 정초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는 이론적 범주였다. 지식인 사회의 이론화 경향은 현실적 문제를 이론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전망조차 허락할 정도로 막대했다. 동시대적인 대중적 문제를 통해 사회에 발언하는 형식으로 소설을 쓰는 박완서는 가장 대중적인 감각으로 대다수 사람들이 고민하는 문제를 소설로 서사화한다.²¹⁾ 정치적인 사건들이 모두 사회적인 쟁점으로 전환되던 시기였기에, 박완서 소설이 건드린 삶의 상황

인 담론을 조율했던 1980년대의 시대적 특성과 연관지어 해명할 문제라고 보인다.

- 19) 홍정선, 「한 여자 작가의 자기사랑」, 『역사적 삶과 비평』, 문학과지성사, 1986 참조.
 20) 오생근, 「대중문학의 전개」, 권영민 엮음, 『해방 40년의 문학4』, 민음사, 1977(발표년도도 1977); 이동하, 「집없는 시대의 꿈」, 『세계의 문학』, 1982. 겨울; 이동하, 「한국 대중소설의 수준」, 『집 없는 시대의 문학』, 정음사, 1985.
 21) 김현주는 박완서의 에세이를 분석하면서 “사회적 발언”이라고 말한 바 있다(김현주, 「<발언>의 정신과 새로운 문화 도덕의 형성」, 『박완서 문학 길찾기』, 세계사, 2000). 항상 동시대적 현실을 사회문제화하는 방식으로 소설을 썼던 박완서는 장르의 구분없이 자신이 글 쓰는 행위 자체를 사회적인 개입이며, 발언으로 인식했다. 권력의 지배방식에 저항하는 사회담론이 지식인들의 정치적 실천으로 인식되던 1980년에 박완서 소설의 이런 성격은 더욱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담론으로서 역할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은 대부분 사회적 현안과 통하는 것이었다. 논란도 많고, 탈도 많았으며, 이런 사회상황 속에서 박완서 소설은 공권력을 배경으로 한 지배담론 뿐만 아니라, 저항권력이 생산하는 담론의 영향력에서도 자유롭지 못했다. 소설은 사회이론이 아니라는 식의 원론적인 논의는 별달리 설득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박완서는 사회에 발언하듯이 소설을 썼지만, 가장 혹독하게 이념적 기준에 의해 폄하되고 비판되었다. 여성작가와 대중작가를 비하하는 문단의 분위기도 한 몫 했을 테지만, 사회담론이 문학을 재단하던 문단 풍토가 사회적 발언의 형식으로 소설을 쓰는 소설가에게는 더 혹독했던 '1980년대'였다.

3. 해석의 다양성과 오독의 가능성

1991년 봄 『작가세계』 특집에서 박완서가 다루어지고, 박완서를 둘러싼 논쟁을 통해 박완서 문학을 해석하는 쟁점들이 점점되면서 박완서 문학에 대한 관심이 좀더 전문화되기 시작한다. 수다스러운 문체나 이야기를 무차별적으로 나열하는 듯한 삽화적 요소들도 점차 전문적인 형식 비평의 대상이 된다.²²⁾ 게다가 1991년 발표된 「엄마의 말뚝3」을 완결편으로 한 『엄마의 말뚝』 연작과 “작가 박완서의 소설적 여정의 완미한 종합이며 또 한국소설사의 어떤 정점으로 기록되어질 만한”²³⁾ 성과로 평가받는 『싱아』와 『그산』의 발간이 자극제가 되어 박완서 문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변화한다. 즉 “이전에 박완서의 작품들에 대해 비판적이거나 유보적인 관점을 취하던 논자들 또한 박완서 문학 및 문학활동이 지닌 의미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려는 태도의 전환을 보여”²⁴⁾

22) 김경수는 박완서 소설에 대한 주제론적 차원의 해석은 많지만, 소설의 기법에 대한 논의를 주제와 연관지어 고찰하려는 노력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김경수, 「여성 경험의 소설화와 삽화 형식」, 『현대소설』, 1991. 겨울 참조.

23) 류보선, 「고통의 기억, 기억의 고통」, 『문학동네』, 1998. 봄, 396쪽.

24) 박혜경, 앞의 책, 73쪽.

준 시기이다. 1994년 본격적인 연구논문으로 박완서 문학 비평을 '연구'로 변화시킨 소장 여성연구자 황도경과 권명아의 등장 이후 박완서 문학 연구는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맞는다.²⁵⁾ 이는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연구 주체의 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남성중심적 비평관점으로 해석하지 못하거나 오해하는 부분들을 이 연구 주체의 출현 속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비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00년대 중반에는 두 권의 연구서가 출간되면서 박완서 문학에 대한 연구성과가 체계적으로 정리되기 시작한다.²⁶⁾ 이 단행본 역시 박완서 문학의 서술적 특성이 주제의식과 연동되면서 소설의 진가를 발휘한다는 점을 높이 평가함으로써, 기존 문학사에서 제대로 평가되지 못한 점들을 당대 사회담론과 연관시켜 해명하며 박완서 문학을 역사적으로 조망하려는 시도를 보여준다.²⁷⁾

이에 못지 않게 남성 평론가들을 비롯한 문단의 여러 평론가들도 자전 소설인 『싱아』와 『그산』의 발간을 계기로 전문적인 평론을 내놓는다. 중산층 문제나 여성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박완서 문학은 『엄마의 말뚝』 연작의 완성과 전쟁기 체험이 주를 이루는 두 편의 자전소설을 계기로 전쟁을 다루는 작가로 해석되기에 이른다. 이후 2010년까지 전쟁서사는 박완서 문학 연구에 입문하는 모든 연구자들이 거쳐야 하는 문턱처럼

25) 황도경, 「정체성 확인의 글쓰기」, 『이화어문논집』, 1994; 권명아, 「박완서 문학 연구」, 『작가세계』, 1994. 겨울. 최경희, 이선옥, 이선미, 신수정, 김양선, 박혜경, 김수진(사회학) 등은 박완서 문학 해석의 영역을 보다 전문적으로 재편한 연구자들이다. 박혜경, 앞의 책 참조.

26) 이 전에도 박완서 소설 연구서로서 단행본이 출간된 바 있지만, 전체적인 작품 세계를 조명하고 연구사를 개관하는 문제의식은 2000년대부터 본격화된다고 할 것이다. 게다가 2000년에는 박완서가 일흔이 되는 해로서 작가세계에서 다시 한번 특집으로 다루어지고, 그 원고를 묶어 단행본으로 출간한 바 있다. 강인숙,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도시와 모성』, 동지, 1997; 이경호, 권명아 엮음, 『박완서 문학 길 찾기』, 세계사, 2000 참조.

27) 박혜경, 『박완서의 엄마의 말뚝을 읽는다』, 열림원, 2003; 이선미 『박완서 소설 연구-분단의 시대경험과 소설의 형식』, 깊은샘, 2004.

인식되었다. 이제 전쟁 서사를 어떻게 해석하는가는 박완서 문학 연구와 해석의 주요 준거점으로 역할하게 된다. 특히 한국전쟁이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근대화를 규정하는 ‘기원’으로 역할한다는 전쟁인식이 학문적으로 담론화되면서 박완서 문학에 대한 해석의 양상은 질적으로 변화한다.²⁸⁾ 새로운 연구주체의 출현과 한국전쟁에 관한 사회과학적 인식은 박완서 문학 해석의 지평을 전체적으로 재편한 셈이다.

2000년대는 1998년 겨울에 발간된 단편소설집 『너무도 쓸쓸한 당신』의 출간과 1999년 출판사 ‘문학동네’에서 『박완서 단편소설 전집』이 발간되면서 박완서 문학의 성격이 새롭게 재발견되고, 재평가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 박완서 소설을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비평은 해석자의 젠더 정체성과 상관없이 이루어진다. 주로 “노년의 정서”로 개념화가 시도되고 있는 박완서 소설을 비평하는 하나의 경향이기도 하다.²⁹⁾ 『너무도 쓸쓸한 당신』에 이어 2007년에 출간된 단편소설집 『친절한 복희씨』에 실린 소설의 서술자가 노인인 경우가 많아지면서, 모든 평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노인의 일상이 소설적 재현대상이 되고, 노인의 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삶과 죽음에 대한 일상적 사유가 전면화되면서, “노인이기에 가능한 원숙한 세계 인식, 삶에 대한 중후한 감수성, 이것들에 따르는 지혜와 관용과 이해의 정서가 품어져 있는 작품세계”라고 규정하며 노년문학을 이

28) 박완서 소설이 당대적 일상을 다루는 방식을 전쟁과 연관시켜 해석하는 관점은 한국전쟁 연구의 성과와 일정 부분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전쟁 연구는 냉전적 관점에서 벗어나, 전쟁을 세계질서 속에서 객관적으로 해명하는 방식으로 진전하였다. 1990년대 이후 발표된 일련의 전쟁 연구서들은 이런 연구성과를 대중화하였으며, 박완서 소설에서 전쟁을 해석하는 관점 역시 전쟁을 둘러싼 사회담론의 변화와 밀접히 연관된다. 1990년대 이후 한국전쟁 관련 연구는 박명립,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나남, 1996; 역사문제연구소 엮음, 『1950년대 남북한의 선택과 굴절』, 역사비평사, 1998; 김동춘, 『전쟁과 사회』, 돌베개, 2000; 박태균, 『한국전쟁-끝나지 않은 전쟁, 끝나야 할 전쟁』, 책과함께, 2005; 정병준, 『한국전쟁: 38선 충돌과 전쟁의 형성』, 돌베개, 2006 등을 참고할 수 있다.

29) 김병익, 앞의 글, 김치수, '역사의 상처와 문학적 극복-박완서씨의 삶과 문학', 『문학과 사회』, 2011. 봄; 박혜경, '걸밧과 정육', 『그 여자네 집』(단편소설전집 6), 문학동네, 2006 참조.

론화하고자 한다.³⁰⁾

그러나 박완서 소설에서 자의식이 드러난 노인의 형상은 그다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저문 날의 삽화」 연작에는 노년의 일상이 자연스럽게 소설의 주요 소재로 전면화되어 있으며, 1981년에 이미 「저문날의 삽화」와 동류인 듯한 노인이 등장하는 「천변풍경」을 쓴 바 있고, 「꽃을 찾아서」(1986), 「저녁의 해후」(1984), 「저물녘의 황홀」(1985), 「애보기가 쉽다고?」(1985) 등 1980년대에 박완서 스스로 노인이라는 자의식이 생기면서 노년의 일상을 소재로 당대적 삶의 문제를 소설화한다. 오히려 ‘노년’을 개념화함으로써 박완서 소설을 인간 본연의 성찰성과 가치추구와 같은 “인간적 삶의 보편성”³¹⁾으로 맥락화하는 시도는, ‘오독’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박완서 스스로도 문단의 이런 평가에 대해 별로 대수롭지 않게 반응하며, “『너무도 쓸쓸한 당신』을 썼을 때도 들었던 말”이고, “늙은이들이 많이 보겠거니”³²⁾ 생각했는데, 이삼십대가 더 많이 본다는 얘기에 놀랐

30) 김병익, 앞의 글, 283쪽. 전홍남은 2007년부터 박완서를 비롯한 노년의 작가를 중심으로 노년문학을 개념화하는 본격적인 논의를 시도한 바 있다. 주로 박완서의 『저문 날의 삽화』(1991)를 중심으로 이론을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논문의 상당부분은 이선미의 『박완서 문학 연구』의 3장 2절 “삽화형식과 자기고백의 회상” 부분을 그대로 옮겨서 ‘노년문학’의 개념을 설명한다. 그저 문학의 성찰적 성격이나 박완서 소설이 보여주는 내면심리를 파헤치는 서술자의 성격-냉정하지만 삶의 이면을 총체적으로 해석하고, 선과 악을 맥락적으로 파악하는 특성으로도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 점이어서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전홍남, 『박완서 노년 소설의 담론 특성과 문학적 함의』, 『국어문학』 42집, 2007.2 참조). 특히 박완서는 노년이란 더 인식해지기도 하고, “하찮은 시각의 거슬림에도 수 십년 세월이 무의미”(『저문 날의 삽화』, 77쪽)함을 목도하게 되는 편협한 나이여서, 적당한 타협 뒤에 들이쉬는 “한숨엔 분노의 찌꺼기 같은 가래 끓는 소리가 조금씩 섞여 있”(『천변풍경』, 『문예중앙』, 1981.봄, 177쪽)다고 노년을 정의한 바 있다. 박완서 소설에서 ‘노년’은 포용력이나 따뜻함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듯하다. 오히려 노년의 치졸함이나 왜소함을 스스로 성찰하고, 그로 인한 고통을 위면하지 않는 치열한 자기반성과 지성적 태도에 가깝다. 이선미, 『세계화에 탈냉전에 대응하는 소설의 형식: 기억으로 발언하기』, 『박완서 소설 연구』, 깊은샘, 각주 3)번 참조.

31) 조한혜정은 1991년 1970년대 남성 평론가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인간적 삶의 보편성”으로 해석함으로써 <여성됨>의 역사성을 소거한다고 평가한 바 있다(앞의 각주 15) 참조).

다는 말로 논의를 전환시킨다. 박완서도 독자도 노년층이 나온 사실을 별로 의식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예컨대, 노년문학의 분석 대상인 「너무도 쓸쓸한 당신」을 보자. 「너무도 쓸쓸한 당신」의 까탈스럽고 변덕스러운 아내가 남편을 향해 열려진 태도로 전환함으로써 보여주는 포용적 태도란, 남편이 드러내지 않는 이면적 고통을 투시함으로써 자신의 치부를 직시하고 인정하게 되고, 자신도 남편도 멀게는 군사주의적 개발독재시대, 가깝게는 속물적 이기심이 판치는 세대에서 권력의 반대편에 있는 ‘타자’됨을 알아치리고 상처를 공감하는 것이다. 결코 이 까탈스러운 노인이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식의 포용력과 세상 전부를 무차별적으로 껴안는 태도로 전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내면의 고통을 예민한 청춘의 언어로 드러내는 1970년의 『나목』과, 남편의 이질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일상을 밀어냈던 자신까지도 성찰하는 노년의 언어로 속물적 세태를 성찰하는 2000년대의 「너무도 쓸쓸한 당신」이 같을 수는 없다.³²⁾ 그러나 노년의 시선이 전면화되어 있는 박완서의 최근 소설인 「빨갱이 바이러스」(『문학동네』, 2009. 가을)에서 여전히 확인할 수 있듯이, 내면에 숨겨져 공적 의미를 얻지 못하는 억압의 세계를 헤집는 “선의에의 냉혹함, 잔인한 이중성, 쾌감 젖은 가학성, 혐오감에 젖은 허위 등” “부정적인 인간 정서”³⁴⁾

32) 박완서, 신형철 대담, 「우리들의 마음 공부는 계속됩니다」, 『문학동네』 2008. 봄, 61쪽.

33) 박완서 스스로 서술태도가 변했다고 하면서 나이들을 자각하기도 한다. “예전에는 촌철살인의 언어를 꿈꿨지만 이제는 위로나 반성할 수 있게 하는 글을 쓰고 싶습니다. 찢어서 까발리는 게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언어와 문체의 변화를 작가적 욕망과 연관지어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소설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 “인간의 이중성과 위선을 파헤치는 날카로운 시선”은 “바깥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도 빠뜨리지 않는다. 「인터뷰: 한국문학의 살아있는 ‘거목’ 박완서」, 『경향신문』, 2009.9.20, 『박완서 문학의 뿌리를 말하다』,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123쪽 재인용.

34) 이 부분은 김병익이 젊은 날 박완서에 대해 불편함을 느꼈던 이유를 설명하는 대목이다. 김병익, 앞의 글 참조.

들을 먼저 헤아려내는 서술자의 성격은 여전히 가장 확실한 박완서 소설의 특징이며 미덕이다.³⁵⁾ 노년문학의 개념으로 박완서 소설을 해석할 때, 한국전쟁이 한국사회를 어떻게 재편하고 질서를 만들어가는가를 소설로서 문제시하는 박완서 소설의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의미를 탈정치화하고 탈역사화하는 비평은 아닌지 되짚어볼 필요는 있는 것이다.³⁶⁾

노년문학으로 박완서 문학을 해석하고자 하는 비평적 관점은 1992년과 1995년 발표된 자전소설 『싱아』와 『그산』에 이어, 1998년과 2007년 노인이 주인공인 단편소설들을 여럿 모은 『너무도 쓸쓸한 당신』과 『친절한 복희씨』 출간한 이후, 노년에 이른 여성이 첫사랑의 기억을 찾아 배회하는 장편소설 『그 남자네 집』이 2004년에 발표되면서 “그리움”, “향수”, “모성”, “평화” 등의 따뜻하고 포용적인, 그러면서 은근히 미소짓게 하는 소설로 해석함으로써 점진적으로 확대 해석되었다.³⁷⁾

그러나 박완서가 한 인터뷰에서 말한 바 있듯이, 『그 남자네 집』은 첫사랑의 남자의 뇌에서 나온 벌레가 전쟁 중에 입은 상처의 원인라는 설정을 통해 ‘전쟁’이 첫사랑의 기억까지도 좌우함으로써 ‘나’의 삶을 전체적으로 장악한 꼴이 된 상태를 표현한 작품이다.³⁸⁾ 즉 박완서는 전쟁을

35) 특징이라는 부분에는 동의하지만, 미덕이라는 부분에는 의견이 갈릴 것이다. 필자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미덕이라고 생각하여 박완서 소설을 분석한 바 있다. 이선미, 앞의 책 참조.

36) 박완서 소설을 ‘노년문학’으로 개념화하는 문제는 아직 선불리 단언하기 어려운 것이기도 하다. 사실, 인생의 주기가 달라져가는 21세기에 ‘노년’을 개념화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박혜숙, ‘시몬느 드 보부아르, 『노년』, 책세상, 2002 참조).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되었기에 더욱 다양한 관점의 논의들이 펼쳐질 담론장이 필요하다. 단지, 박완서 문학을 노년문학으로 개념화하는 것이 박완서 문학의 정치사적 비판 의식을 보편적 윤리로 환원하는 방식이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즉 노년적 사유, 혹은 노년지성으로서의 역사와 인간적 한계에 대한 각성, 혹은 더 치열한 자기 성찰의식 등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는 박완서 문학 연구에서 앞으로 더 논의될 문제이다.

37) 강진호, 「전쟁의 상처와 유년의 향수」, 『월간 문화예술』, 2004.4; 임규찬, 「‘자아’를 넘어선 ‘자기의 우주」, 『창작과비평』, 1999. 봄; 백지연, 「황혼의 삶을 향한 따뜻한 시선」, 『동서문학』, 1999. 봄; 최성실, 「자, 이제 희망에 대해서 말씀드리지요」, 『문예중앙』, 1999. 봄 참조.

소설의 소재로 삼을 때, 전쟁을 그 자체 사건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전쟁을 비롯한 과거이야기는 현재의 문제를 직시하기 위한 기원으로서 기억되는 ‘사실’이다.

실명을 거론하면서 굳이 소설이 아니고, 사실임을 강조하는 형식으로 3년의 차이를 두고 발표된 장편소설 『싱아』와 『그산』 역시 작가가 전쟁을 서사화하는 것이 과거를 낭만적이고 따뜻한 정서로 추억하는 것이 아닌,³⁸⁾ 당대적인 정치적 발언의 형식으로 탈냉전의 현실에 개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⁴⁰⁾ 박완서 소설에서 노년의 지혜를 통해 새로이 기억하는 ‘과거’ 재귀의 문제는 지난 시간은 모두 아름답다는 식의 추억담이나 노년의 회고취향과는 구별해야 할 것이다. ‘전쟁’의 원체험이 트라우마로 작용할 때, 개인적 상처는 곧 집단적 상처의 다른 표현이라고 보는 ‘전쟁’ 경험이 한국사회의 기원이라는 관점에서 해석될 필요가 있다.

4. 박완서 소설 해석의 눈: ‘전쟁’ 경험의 현재적 맥락화

박완서가 등단작 『나무』에서부터 전쟁의 체험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38) 박완서, 신형철 대담. 작가는 이런 의도를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못내 섭섭해한다. 실제로 “별 이유도 없이 멀어버”렸다고 해석하는 평론도 있다(김형중, 『‘집’과 ‘근대’-박완서 장편소설 『그 남자네 집』과 공지영 소설집 『별들의 들판』』, 『문학동네』, 2005. 봄 408쪽 참조). 박완서가 전후의 안일한 행복이나 소시민적 이기심을 다룰때 전쟁이 기원으로 작용하는 것임을 항상 환기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너 속의 별레라는 작은 장치이지만, 알지 못하면 전혀 다른 해석이 될 가능성의 한 사례인 듯하다.

39) 사실, 『싱아』는 어릴 적 기억이기에 그런 대목이 많다. 낭만적 추억과 ‘향수’를 환기하는 독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강진호는 주로 이 부분에 집중하여 유년의 향수를 논의한다는 점에서 ‘향수’와 같은 낭만적 정서를 전면화하는 다른 논자들과는 다르기도 하다. 강진호, 앞의 글 참조). 『싱아』가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것은 주로 이런 독서의 즐거움 때문일 것이다. 독서는 개별적 행위임을 무시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전체적으로 작품의 의미가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40) 이선미, 『세계화와 탈냉전에 대응하는 소설의 형식』, 앞의 책 참조.

있지만, 반복은 단지 박완서 개인에게 원체험이어서가 아니다. 한국사회의 '현재'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기원이기 때문이다. 지금 여기의 삶을 말하기 위해서 박완서는 반드시 전쟁에서부터 시작한다. 전쟁은 작가 개인의 원체험인 동시에, 전후 한국사회의 원체험이기에, 변화한 현실의 문제를 말할 때마다 다시 서사적으로 재현한다. 반복인 듯 하지만, 반복이 아닌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새로운 현실 속에서 새롭게 해석되고 쓰여질 수밖에 없다.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냉전적 세계 질서가 변화하는 현실에서 굳이 사실임을 강조하면서 실명을 사용하며 쓴 『싱아』와 『그산』은 새롭게 변화한 현실을 인식하는 작가의 서사적 대결인 셈이다. 이미 세계질서는 변하고 있고, 사회주의도 하나의 이념으로 물화되어 가는 현실에서 인간을 벌레로 만들었던 전쟁의 경험 자체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무용담으로 변화하는 현실의 논리를 참을 수 없는 작가가 이런 현실과 대결하는 방식으로 전쟁을 서사화한 것이다.⁴¹⁾ 요컨대, 전쟁은 박완서에게 남다른 의미체계를 구성하는 역사적 사실이고 경험이며, 박완서의 전쟁 인식은 서사를 분석하는 기본적인 토대이다.

일반적으로 전쟁은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양상으로 경험한 '재난'으로서의 사건이지만, 대부분 벌레가 되는 보편적 경험으로 기억한다. 그 자체로 전쟁은 인간이 다시 하기 어려운 고통을 경험하게 하고, 상처를 각인시킨다. 박완서 소설의 전쟁서사는 이 고통을 기억하고 근원을 해명하는 일반적인 성격을 지니며, 한국사회의 근대성을 질문하는 근원의 서사로 역할한다.

먼저, 박완서 소설에서 전쟁은 망각의 사회적 맥락에서 억압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반공을 국시로 정통성을 구성하였던 남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모든 전쟁경험 당사자들은 하나의 경험만을 공식화할 수 있었다. 냉전

41) 『그산』의 서문에 등장하는 동산을 밀어버리는 불도저에 자신의 전쟁경험과 그것이 무화되는 탈냉전의 현실을 비유하는 것과, 동산이 없어진 후 동산의 존재 자체를 사람들이 잊어버린다면 굳이 벌레의 시간을 증언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라는 자의식은 이런 현실인식과 통한다고 할 것이다.

문화는 분단을 통해 국가정체성을 구성하는 한국사회에서 극단적인 형태를 띠 수밖에 없다. 전쟁 자체도 벌레가 되는 경험이라 고통스러운 것인데, 그 고통의 경험을 없었던 일로 살아야 하는 것은 몇 배나 고통스러운 일이다. 「빨갱이 바이러스」(『문학동네』, 2009. 가을)에서처럼 그 상처는 누구와도 하나가 될 수 없는 상처인 채로 탈냉전의 시대에도 여전히 한국사회를 사로잡는 냉전의식이다. 「돌아온 땅」(『세대』, 1977.4)과 유사한 구조이면서 대비되는 「빨갱이 바이러스」는 민주화, 사회주의 소련의 붕괴, 탈냉전, 지구화 등, 냉전질서가 무화되고 세계 상황이 급변한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일상적인 개인들의 삶을 사로잡는 반공 이데올로기의 실체를 역력히 드러내준다. 박완서 소설은 전쟁이 하나의 시점에서 완결되는 사건이 아니라, 이후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질서로 현재화되는 기원의 구조임을 보여준다. 그렇기에 전쟁은 언제나 전쟁의 상황으로 서사화되지 않는다. 전쟁을 기억하는 ‘현재’를 통해 재현된다. ‘지금-현실’에 직면하는 과정에서 환기하는 ‘과거’이기에 행복하고 평화로운 ‘추억’인 경우는 거의 없다. ‘기억’은 거의 언제나 ‘고통’의 감각을 동반한다.⁴²⁾

둘째, 전쟁은 공식적인 기억 이외의 기억을 망각해야 하는 억압의 역사와 결부되어 있으면서, 여성이 겪는 고통을 극대화하고 더 적극적으로 억압해야 하는 망각의 윤리적 맥락을 형성한다. 『나목』에서 전쟁으로 인해 오빠를 둘이나 잃었던 이경은 아들 대신 살아남은 딸을 원망하는 엄마의 시선 때문에 더 큰 자기 상실을 경험한다. 자신도 오빠를 잃고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아들을 잃고 고통스러워하는 엄마를 돌봐야 하는 책임을 안고, 게다가 청춘의 시간을 잃고 고통스러워하는 이경은 자신이 돌봐야 하는 엄마에게 살아남은 딸이어서 거부당한다. 이경은 이중 삼중의 고통으로 전쟁을 경험한 것이다. 「그 가을의 사흘동안」의 산부인과 의사인 ‘나’

42) 초기 박완서 소설은 전쟁을 기억하는 양상보다는 그로 인한 경험을 숨기고 살아가는 인물들의 감각적 반응을 통해서 전쟁을 상처나 고통으로 재현했다. 주로 딸꾹질, 토악질, 도리질, 메스꺼움, 이물감, 부끄러움 등 신체적 감각과 연관된 감정을 통해 전쟁이 억압된 상처로 현재화되었음을 드러낸다.

역시 전쟁 통해 흑인병사에 의해 강간을 당한다. 그러나 강간당했다는 '고통'은 물론, 강간을 당했다는 '사실'도 말할 수 없다. 전쟁은 그 자체 만으로도 일상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벌레가 되도록 만드는 사건이다. 그러나 여성들은 벌레가 되는 고통을 젠더적으로 이중으로 겪고서도 이 고통이 사회규범에서 벗어난 것이기에, 없는 것으로 숨겨야 하는 것을 더 고통스러워한다. 전쟁 상황에서 피해자가 되지만, 정조관념 때문에 피해자 이면서도 '죄의식'을 가져야하기에 더 고통스러워한다. 때문에 '나'는 세상에 복수하는 심정으로 '생명' 자체를 태어나지 못하게 하는 낙태 전문 산부인과 의사가 되기로 마음먹고 산부인과를 차린다. 이 소설에서 끊임없이 '나'를 자극하는 우단의자는 '전쟁'이기보다는 아버지로 대표되는 사회윤리적 규범을 상징한다.

이 한편의 소설에는 박완서가 전쟁을 한국사회 근대성의 기원으로 파악하는 점이 집약되어 있다. 전쟁은 전쟁을 치루는 일상 속에 놓인 모든 개인들에게 벌레가 되는 고통이면서, 반공 정체성에 적합한 공식기억에 의해 나머지 기억은 억압되어야 하며, 게다가 여성은 여성의 규범으로 제시된 사회윤리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다시 한번 더 숨겨야하는 기억을 만드는 사건이다. 전쟁은 이후 한국의 근현대사를 통째로 규정하며,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세계를 속속들이 관여하는 지배적인 질서의 기원이 되는 사건이다. 전쟁이 어떻게 치루어졌는가도 중요하지만, 전쟁이 이후 한국사회의 질서와 문화를 어떻게 형성해왔는가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게 박완서 전쟁서사의 중심 주제이다. 이 복잡한 연쇄적 관계는 쉽사리 해석되지 않는다. 한국전쟁이 한국의 근대적 질서의 기원으로 작용하는 점을 해명하고자 한 전쟁연구는 오히려 문학비평보다도 박완서 소설을 더 잘 해석할 수 있는 이론을 제공하기도 한다.⁴³⁾ 한국전쟁에 대한 사회학적

43) 김동춘의 한국전쟁 인식과 한국사회 근대성 연구는 박완서 소설이 전쟁을 다루는 방식을 이해하는 데 하나의 사회과학적 인식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인식과 해석의 관계를 생각해볼 수 있는 사례이다. 김동춘, 『전쟁과 사회』, 돌베개, 2000; 김동춘, 『근대의 그늘』, 2000, 당대 참조.

연구는 한국전쟁을 한국사회의 현실을 규정하는 근대성의 기원으로 문제 제기하는 박완서 소설을 해석하는 기본적인 역사인식이기 때문이다.

셋째, 권력에서 동떨어진 평범한 사람들이 전쟁을 겪고, 전쟁 이후에 전쟁의 경험을 안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전쟁이 현실의 질서로 자리잡는 과정은 1970년대 이후 사회 저변으로 확대된 중산층의 심리로 고착화된 다. 별레가 되는 경험과 별레가 되는 경험 중 공식 기억과 반대되는 반공주의 검열에 걸리는 기억은 없었던 것으로 만들어야하는 고통이 전쟁의 또 다른 경험이며, 여성들은 남아선호사상과 정조관념 때문에 전쟁을 더 고통스럽게 경험하고도 그것을 반공주의보다 더 잔혹한 가부장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치부’로 여기며 억압된 채 살아간다. 이 또다른 경험 속에서 여성들은 잔인한 복수의 심정을 안고 평온한 일상의 이면에 극적 긴장감을 간직한 채 살게되는 것이다.

중산층의 심리는 이런 전쟁의 현재적 경험양상과 타자화 과정을 모르는 척하는 교묘한 마음인데, 박완서 소설은 전쟁이 어떻게 치루어졌고, 아직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방식으로 질서화되었는가를 증명하는 시대적 ‘마음’으로 표현한다.⁴⁴⁾ 이 중산층의 심리는 소시민의 심리라는 계층적인 심리로 일반화되기도 하지만, 자본주의와 연관된 일반적 의미보다는 “피난 사회”⁴⁵⁾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심성구조에 더 가깝다. 「복원되지 못한 것들을 위하여」에는 이 ‘못 본 척’ 심리의 실체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있다. 지배권력이 내세운 사회적 규범이 강화됨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되는 자아를 용인하는 사회적 시스템은 사라져간다. 개발독재는 국가체제의 기본 성격이고, 이 국가체제 하에서 살아남기 위해 부정한 방식의 통치와 타자를 배제하는 과정을 모르는 척 하는 심리는 더욱 교묘하게 내면화된

44) 이선미, 「한 길 사람 속을 파헤치는 소설」, 『실천문학』, 2010. 봄 참조.

45) 김동춘은 한국전쟁이 진행되는 과정을 피난, 점령, 학살 3부분으로 나누어 고찰한다. 이를 통해 전후 한국사회의 문제는 ‘피난 사회’라는 함의 속에서 해명될 수 있다고 한다(김동춘, 앞의 책 참조). 박완서 소설이 해명하고자 하는 중산층의 ‘못 본 척’ 심리는 이 피난사회의 성격과 연관된 대중 심리라 할 수 있다.

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의 부정성을 '복원'한다는 것은 이런 사실을 재현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권력에 빌붙어서 권력의 부정성을 유지하는 데 일조했던 평범한 많은 사람들의 부정까지 재현해야만 가능한 것이다. 지배권력의 부정성이 전쟁과 연관되어 있듯이, 그 권력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 못 본 척 공모했던⁴⁶⁾ 중산층의 이기심 역시 전쟁에서 연유된 한국 '근대성'의 한 자락이다. 중산층의 심리는 단순히 계급/계층적 심성구조로 일반화할 수 없는 한국 근현대사의 성격이 개인의 삶에서 재현된 방식으로 볼 수 있다.

박완서의 전쟁서사와 관련된 한국사회 인식의 지형도는 전쟁을 한국의 근대화를 규정하는 기원적 서사로 인식하는 것을 바탕으로 한다. 모든 것이 전쟁에서 시작되는 박완서의 기억은 과거를 낭만적으로 회고하는 '추억'이나 '향수'로 미화되지 않는다. 현재적 문제의 근원을 찾기위한 '기억'이다. 따라서 박완서 소설은 여성문제인 듯하면 중산층 문제와 연관되고, 전쟁의 기억과 관련되어 있으며, 어릴 적 근대화를 체험할 때의 삶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지금 현실의 자리에서 전쟁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삶의 상황은 박완서의 전체 소설을 아우르는 서사적 중심축이다. 2000년대까지도 여전히 반복되는 전쟁을 '기억(망각)'하는 서사는 과거를 낭만적으로 정서화하는 것이기보다는 치열한 현실인식의 소산이다.

5. 마무리

박완서의 죽음 이후, 박완서 소설은 출판시장에서 새롭게 상업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박완서는 『휘청거리는 오후』(1977)와 『도시의 흥년』(1978),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일지사, 1976), 『창 밖은 봄』(1978), 『꿀

46) '저문 날의 삽화' 연작의 주된 서술방식인 연관성 없는 삽화들은 이 못 본 척의 심리가 전쟁이나 근대화 과정과 연관된다는 것을 병렬적인 배치로 재현하는 고안된 형식이다.

찌에게 보내는 갈채』(평민사, 1977), 『혼자 부르는 합창』(진문출판사, 1977), 『여자와 남자가 있는 풍경』(한길사, 1978) 등이 출간되던 1970년대부터 이미 베스트셀러 작가였으며, 책이 나올때마다 새롭게 주목받고 베스트셀러 목록이 추가되는 기록을 세운 작가이다. 1970년대부터 꾸준히 베스트셀러 작가였지만, 사후 급속히 판매고가 올라가자 문단에서도, 저널리즘에서도, 시장에서도 최고 가치를 인정받으며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에 그랬듯이, 박완서 소설은 문단이나 연구자들이 먼저 알아본 경우는 많지 않다.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면서 대중작가라고 비판받았던 때도 있었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면서 한국소설사의 거장으로 고평되기도 했다. 독자들이 가장 먼저 읽기 시작했으며, 베스트셀러라는 현상 속에서 평가되었다. 때문에, 시장의 논리가 삶의 질서에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는 지금 한국사회에서 잘 팔리는 작가라서 최고의 평가를 받는 것이 오히려 박완서를 너무 신화화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박완서 소설은 그저 현실을 재현하는 듯한 사실주의 기법으로 일상적인 평범한 삶을 소재로하는 소설이기에 쉽게 해석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읽도록 만든다. 그러나 이런 기대는 작품을 읽어감에 따라 어긋나기 십상이다. 이야기는 평범하고도 사사로운 일상의 자락에서 출발하지만, 빙산의 일각처럼 작게 솟아난 일상의 심층은 거대한 역사적 관계와 정치적 맥락들이 얽혀있는 근현대사의 산맥과 만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체를 드러내는 이런 소설적 특성으로 인해 소설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오독’할 가능성은 커진다. 박완서 소설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지만, 상징이나 기교가 없는 단선적 서사와 디테일에 준하는 ‘해석’ 역시 분명하다. 작품이 구성하는 해석의 층이 선명하다면, 적어도 박완서 소설을 오독하는 비평을 경계할 필요는 있는 것이다. 1980년대 비평이 작품을 폄하하는 방식으로 ‘오독’의 예를 보여주었다면, 1990년대 이후는 작품을 과도하게 신화화하는 방식으로 ‘오독’할 가능성을 내비친다. 박완서 문학 해석의 역사가 말해주듯이, 해석과 비평의 수준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상당한 수

준에 도달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과잉 해석의 여지는 남아있으며, 객관적인 평가로서 경계되어야 할 것이다.

박완서의 2009년 작품인 「빨갱이 바이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박완서 소설은 평화, 모성, 따뜻함, 포용, 너그러움보다는 따뜻한 언어로 포장된 내면에 잠복해있는 이기심이나 상처를 ‘혐오감’, ‘고약함’ 등의 정서를 매개로 해집어 밝혀내는 것에 더 가깝다. 그리고 상처받은 자들의 연대를 꿈꾼다.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도 ‘빨갱이’라는 정체를 특수하게 구성하는 한국사회의 현실을 냉정히 성찰한다. ‘빨갱이’는 어떤 상처와도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 지금 한국사회의 현실임을 부각시킨다.⁴⁷⁾ 전쟁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는 작가는 마지막까지도 여전히 한국사회는 냉전이 지배적인 질서라는 점을 환기한다. 문제는 전쟁의 과정이고 전쟁을 기억/망각하게 하는 전후 사회의 성격인 것이다. 박완서 문학을 해석하는 것은 이런 전쟁의 연관성을 외면하고서는 이를 수 없는 미로이기도 하다. 박완서 문학은 한국 전쟁과 한국 근현대사를 ‘아는 것’은 힘이 된다는 것을 절감하게 하는 텍스트이다.

박완서 소설은 근현대사를 아는 것이 소설을 해석하는 절대적인 힘으로 역할하는 텍스트이다. 그리고 이런 해석적 관계 속에서, 소설을 심층적으로 해석하면 할수록 현재적 일상을 구성한 기원으로서 한국전쟁과 근현대사의 복잡한 과정을 인식할 수 있는 텍스트이기도 하다. 현재적 삶의 개별적인 양상을 통해 ‘역사’를 인식하는 ‘소설’의 의미를 박완서 소설 해석의 과정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47) 「빨갱이 바이러스」의 주인공은 자신이 숨기고 있는 어릴 적 빨갱이 경험은 그 모든 약자들의 경험 중에서도 아무 하고도 나눌 수 없는 유일한 것이라고 토로하며, 그렇기 때문에 누구와도 나누지 못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강인숙,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도시와 모성』, 동지, 1997.
- 김동춘, 『전쟁과 사회』, 돌베개, 2000.
- 김동춘, 『근대의 그늘』, 당대, 2000.
- 박명립,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나남, 1996.
- 박태균, 『한국전쟁-끝나지 않은 전쟁, 끝나야 할 전쟁』, 책과함께, 2005.
- 박혜경, 『박완서의 「엄마의 말뚝」을 읽는다』, 열림원, 2003.
- 역사문제연구소 엮음, 『1950년대 남북한의 선택과 굴절』, 역사비평사, 1998.
- 이경호, 권명아 엮음, 『박완서 문학 길찾기』, 세계사, 2000.
- 이선미, 『박완서 소설 연구』, 깊은샘, 2004.
- 이정희, 『오정희 박완서 소설의 두 가지 풍경』, 청동거울, 2003.
- 정병준, 『한국전쟁: 38선 충돌과 전쟁의 형성』, 2006.
- 시몬느 드 보부아르, 『노년』, 책세상, 2002.

2. 논문

- 강진호, 「반공주의와 자전소설의 형식」, 『국어국문학』 133호, 2003.5, 313~337쪽.
- 강진호, 「전쟁의 상처와 유년의 향수」, 『월간 문화예술』, 2004.4, 110~116쪽.
- 권명아, 「박완서 문학 연구」, 『작가세계』, 1994. 겨울.
- 권명아, 「추모 고 박완서 선생-작가를 기억하는 미래형 방식을 위하여: 박완서, 그녀가 남긴 것」, 『작가세계』, 2011. 봄, 94~102쪽.
- 김경수, 「여성 경험의 소설화와 삽화 형식」, 『현대소설』, 1991. 겨울, 323~333쪽.
- 김경연, 전승희, 김영혜, 정영훈, 「여성해방의 시각에서 본 박완서의 작품세계」, 『여성』 2호, 1988, 201~236쪽.
- 김경원, 「박완서 논쟁과 여성문학이 나아갈 길」, 『말』, 1991.7, 226~229쪽.

- 김병익, 「박완서, 거짓된 세상을 아프게 껴안다」, 『모든 것에 따뜻함이 숨어 있다』, 웅진지식하우스, 2011, 266~287쪽.
- 김수진, 「전상성과 병리성의 경계에 선 모성」, 『여/성이론』, 1999(창간호).
- 김양선, 오세은, 「안주와 탈출의 이중심리」, 『오늘의 문예비평』, 1991, 52~67쪽.
- 김양선, 「'복원'과 '복수'의 네버엔딩 스토리」, 『작가연구』, 2003. 상반기.
- 김윤식, 「박완서론-망설임 없는 의식」, 『우리 문학의 넓이와 깊이』, 서래헌, 1979, 124~127쪽.
- 김윤식, 「천의무봉과 대중성의 근거-박완서론」, 『문학사상』, 1988.1, 143~162쪽.
- 김치수, 「역사의 상처와 문학적 극복-박완서 씨의 삶과 문학」, 『문학과 사회』, 2011. 봄, 388~397쪽.
- 김현주, 「<발언>의 정신과 새로운 문화 도덕의 형성」, 『박완서 문학 길찾기』, 세계사, 2000, 146~165쪽.
- 김형중, 「'집'과 '근대'-박완서 장편소설 『그 남자네 집』과 공지영 소설집 『별들의 들판』」, 『문학동네』, 2005. 봄, 402~416쪽.
- 박완서, 신형철 대담, 「우리들의 마음 공부는 계속됩니다」, 『문학동네』, 2008. 봄, 48~69쪽.
- 박혜경, 「걸밧과 정육」, 『그 여자네 집』, 문학동네, 319~337쪽.
- 백낙청, 「사회비평 이상의 것」, 『창작과비평』, 1979. 여름.
- 백지연, 「황혼의 삶을 향한 따뜻한 시선」, 『동서문학』, 1999. 봄, 302~307쪽.
- 류보선, 「고통의 기억, 기억의 고통」, 『문학동네』, 1998. 봄.
- 서영채, 「사람다운 삶에 대한 갈망」, 『박완서 단편소설 전집 3 아저씨의 훈장』, 문학동네, 1999, 365~385쪽.
- 신수정, 「증언과 기록에의 소명」, 『소설과사상』, 1997. 봄, 227~246쪽.
- 유중호, 「고단한 세월 속의 젊음과 중년」, 『창작과비평』, 1977. 가을, 214~220쪽.
- 염무웅, 「사회적 허위에 대한 인생론적 고발」, 『세계의 문학』, 1977. 겨울.

- 오생근, 「한국 대중문학의 전개」, 권영민 엮음, 『해방 40년의 문학4』, 민음사, 1977(발표년도도 1977), 22~242쪽.
- 이동하, 「집없는 시대의 꿈」, 『세계의 문학』, 1982. 겨울, 238~247쪽.
- 이동하, 「한국 대중소설의 수준」, 『집 없는 시대의 문학』, 정음사, 1985.
- 이선미, 「세계화에 탈냉전에 대응하는 소설의 형식:기억으로 발언하기」, 『박완서 소설 연구』, 깊은샘, 2004, 403~432쪽.
- 이선미, 「1960년 전후 (성)문화풍속과 ‘사랑’의 사회성」, 『상허학보』, 2010.6, 411~432쪽.
- 이선미, 「한 길 사람 속을 파헤치는 소설-분단/냉전의 문화와 마음의 흔적」, 『실천문학』 2011. 봄, 264~281쪽.
- 이선영, 「세파 속의 생명주의와 비판의식」, 『그 가을의 사흘동안』, 나남, 1985, 411~425쪽.
- 이선옥, 「박완서 소설의 다시쓰기」, 『실천문학』, 2000. 가을, 53~67쪽.
- 임규찬, 「‘자아’를 넘어선 ‘자기의 우주」, 『창작과비평』, 1999. 봄.
- 전홍남, 「박완서 노년 소설의 담론 특성과 문학적 함의」, 『국어문학』 42집, 2007.2, 33~66쪽.
- 조한혜정, 「박완서 문학에 있어 비평이란 무엇인가」, 『작가세계』, 1991. 봄, 97~144쪽.
- 최경희, 「<엄마의 말뚝1>과 여성의 근대성」, 『민족문화연구』 9호, 1996.
- 최성실, 「자, 이제 희망에 대해서 말씀드리지요」, 『문예중앙』, 1999. 봄.
- 홍정선, 「한 여자 작가의 자기사랑」, 『역사적 삶과 비평』, 문학과지성사, 1986.
- 황광수, 「민족문제의 개인주의적 굴절」, 『창작과 비평』, 1985. 가을, 269~282쪽.
- 황도경, 「정체성 확인의 글쓰기」, 『이화어문논집』, 1994, 623~667쪽.

【Abstract】

Park Wan-seo's Novel and Criticism: Logic of the
Appreciation and Interpretation

Lee, Sun-mi

Park Wan-seo has attracted attention since 1993, when she had written the autobiographical novel. But she didn't have this reputation in the early stage of works. Especially, in the 1980s she had been criticized that she was a female writer and popular writer. And the research papers about the works of Park Wan-seo are considerably in a quantitative respect. On the other hand, Park Wan-seo's Novels were not researched and criticized from various angles. And many researches had concentrated on the narrative of Mother, for example, {The post of My Mother}.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the trend of interpretation for Park Wan-seo's Novel and the social discourse based. In the 1980s, the critics diminished the achievements, and in the 2000s, the critics highly praised. But Park Wan-seo was not conscious of these various criticisms, and the works had not changed.

Park Wan-seo's Novels represented the everyday affairs, therefore the readers and critics regard these works as the simple narrative. But Park Wan-seo's Novels have the complex narratives and episodic form. Then,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and interpretate. Most Novels and narratives connected to the experience of Korean-War.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at the works dealt with the contemporary problems, and finally those revealed the original respects of Korean-War.

Park Wan-seo's Novels is the problematic text telling the Korean

modern history. The more we study the Korean history, th more we can understand the works.

Key words: Park Wan-seo, appreciation, interpretation, autobiographical novel, social discourse, Korean-War, Korean modern history

■ 본 논문은 4월 30일에 접수되어 5월 7일부터 23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5월 26일에 게재 확정되었음.